

# “문화예술단체 예산 증액 웬말”

### 이상현 도의원 “운영비 지원 증액사유 설득력 없다” 꼬집어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 1·사진)이 23일 열린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의 증액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명



목으로 2017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의 허술한 정산보고 및 행정의 관행적인 지원이 문제가 돼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년만에 예산을 '일위치' 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을 행정이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고백에 볼 수 없다는 게 이상현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교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전북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진성기자



“내게 맞는 일자리는?” 23일 전북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7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군산대학교 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 진안 ‘웅치전투지’ 핵심터 밝혀져

### 상황당터·추정고분·진지터·봉황터 등 전적지 관련 유적 확인

전북도와 진안군이 시행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조사한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와 종합학술조사 최종보고회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과 왜군이 혈전을 벌였던 '웅치전투지' 핵심지역이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임이 밝혀졌다.



전북도와 진안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22일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와 종합학술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적지와 관련된 유적으로 상황당터, 요강원터, 추정고분, 진지터, 봉황터 등도 확인됐다. 지난 22일 열린 보고회는 웅치전투의 핵심현장과 유적을 파악하고, 관련 민속·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면 세동리 일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전투현장의 위치 비정확과 성역화 사업 추진 등에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조사결과 1592년 7월 8일과 9일 조선군과 왜군이 혈전을 벌였던 웅치전투지의 핵심지역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임이 밝혀졌다. 당시 웅치 옛길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를 잇는 고갯길, 일명 덕봉재길(옛웅치길)로 확인됐다. 특히 고고학적 정밀지표조사 결과 웅치전적지와 관련된 유적으로, 기존에 확인된 바 있는 상황당터

와 추정고분, 요강원터 등 7곳의 유적과 더불어 추정 진지터 2곳, 봉황터 2곳 등 4곳의 유적이 신규로 확인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길로 비정되는 덕봉재길(옛웅치길)의 역사성과 전투 흔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진안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더불어 국가 문화재 지정 및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 고군산군도 '견고싶은 섬' 재도약 전문가·실과 협업회의 개최

전북도는 23일 행정부지사 주재의 '고군산군도 견고싶은 섬 만들기' 관련 협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 건설교통, 환경, 관광, 산림 분야 실과장과 전

주대학교 최영기 교수와 전북연구원 김재구 박사 등 15여명이 참석하여 고군산군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과 개별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도서종합개발계획 반영, 중앙공모사업 활용, 시군 중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자연과 문화를 보전한 견고 싶은 섬, 걸으면 즐거운 섬, 고군산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실과가 힘을 합하고, 전문가 유관기관 협력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부서간 협업을 주문했다. /김진성기자

## 공기업출연기관 경영개선 온힘

### 전북도, 직원 60여명 대상 맞춤형 직무역량교육

전북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7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관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도 경영평가의 올바른 이해 및 경영혁신,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경영평가 평가단으로 참여한 이삼우(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장 리더십부터 출연기관 최일선까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조언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조직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 및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이미 도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시켜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공기업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직무교육, 청렴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 “한국지엠 공장 정상화”

###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전북도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군산시의회와 제안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전북대병원장, 산업은행 총재,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20여년간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130여개 협력업체, 1만30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군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산 수출의 50%, 전북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어 군산시는 물론 전북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는 파탄의 늪으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위기가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덧붙여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도 시·군의회의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종 현안 사안에 공동 대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관문 기자

## 도 농경위 농축수산물국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3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물국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 국민의당)은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한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과 관련 "올해 88억원의 예산 중 결산 추경에 15억원의 사업비를 감액 요구하는데 일부 부서 시군, 농가에서는 농촌 가꾸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사가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참여를 못했다"며, "제대로 수요처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하여 감액처리 하는 것은 도나 시군이 단지 신청만 기다리는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민주당)은 "도에서는 울림픽 대비와 가축질병 사전 예방책으로 사육제한 사업에 대해 많은 농가에게 참여 독려"를 주문했다. /김진성기자

# 자 산 매 각 공 고

사 건 2015회합 31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매각 대상 자산의 표시

물건 번호	부동산 번호	부동산 주소/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1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366	공공부지	16,043.7㎡	㈜씨티아이
	2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공장건물	6,113.2㎡	
	3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366	사출상형기 외 12점		

\* 부동산 번호 2. 부동산에는 제시의 건물 포함

### 2. 매각방법 및 일시, 장소 등

가. 매각방법: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나. 매각조건

- 1)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최고가 용찰자를 낙찰자로 함.
- 2) 최고가 용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석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제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 1) 입찰마감일, 최저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회차	최저(입찰마감일시)	최저입찰가격(원)	%	비고
1회차	2017. 12. 11. 09:00	물건번호 1 6,276,293,780원	100%	매각시 최저세출분에 한함
2회차	2017. 12. 11. 10:00	물건번호 1 4,393,405,646원	70%	
3회차	2017. 12. 11. 11:00	물건번호 1 3,075,383,952원	49%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 개찰은 매회차 마감시 이후 10분에 실시하며, 회방자는 참관할 수 있음

### 2) 입찰방법

- 1) 입찰서 양식: 채무자 회사에 비치
- 2) 입찰서 제출방법: 관리인의 입찰관련 사무실에 현장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입찰봉투표면에 (주)씨티아이 매각 입찰서 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서 제출장소: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관리인실

### 라. 입찰의 성립과 낙찰자 결정 등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부동산 및 기계기구 일괄매각이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2) 입찰마감 일정시까지 입찰장소에 접수(도착)된 입찰서만 유효하며, 입찰시간 이후에 도착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고 효력이 없음.
- 3) 임대조건을 고려(임대비용을 입찰가에서 공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4) 개찰결과를 낙찰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함.

### 3.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가. 낙찰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후, 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낙찰이 무효 될 경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함).
- 나.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찰금액의 10%로 하며,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다. 낙찰자 결정과 매매계약은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별도의 이자 없이 낙찰자에게 반환한다.

### 4. 입찰서류

- 가. 입찰서: 별지양식 나. 입찰보증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5.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위 매각대상을 일괄 당시에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 대하여 위 목적물 자체의 하자(과손, 수량불일치 등)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전 위 매각대상에 관한 사항을 실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수자는 매도인(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에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2019년까지 임대해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매수자의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차입은 매도인의 회생계획안에서 책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더불어 매도인이 입찰한 물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최우선하여 제입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 6. 기타

이 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씨티아이 기획경영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전화 063)838-4747, 팩스 063)838-47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